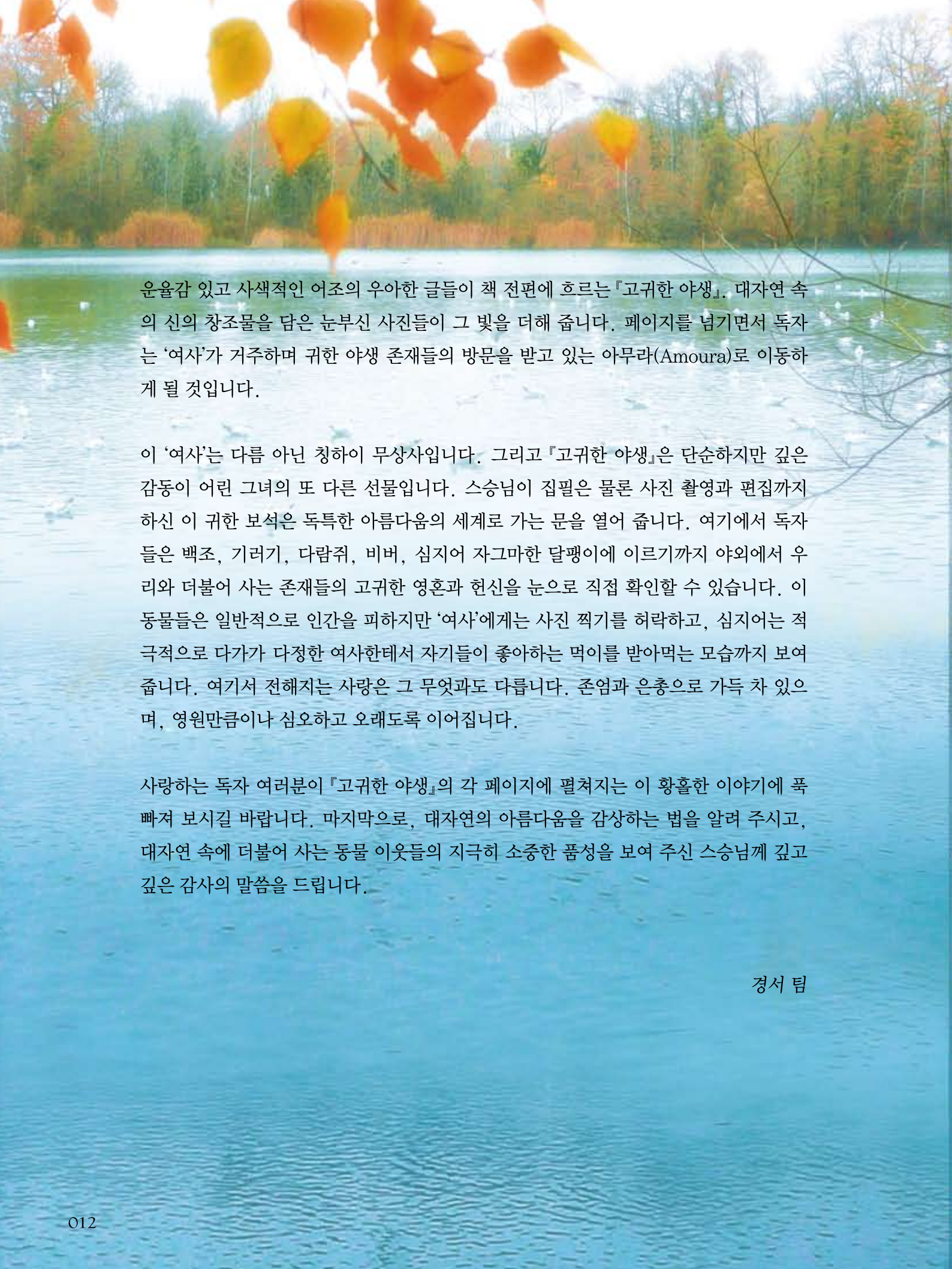


# 그귀한 야생

칭하이 무상사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화합, 평화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삽니다.”

~ 피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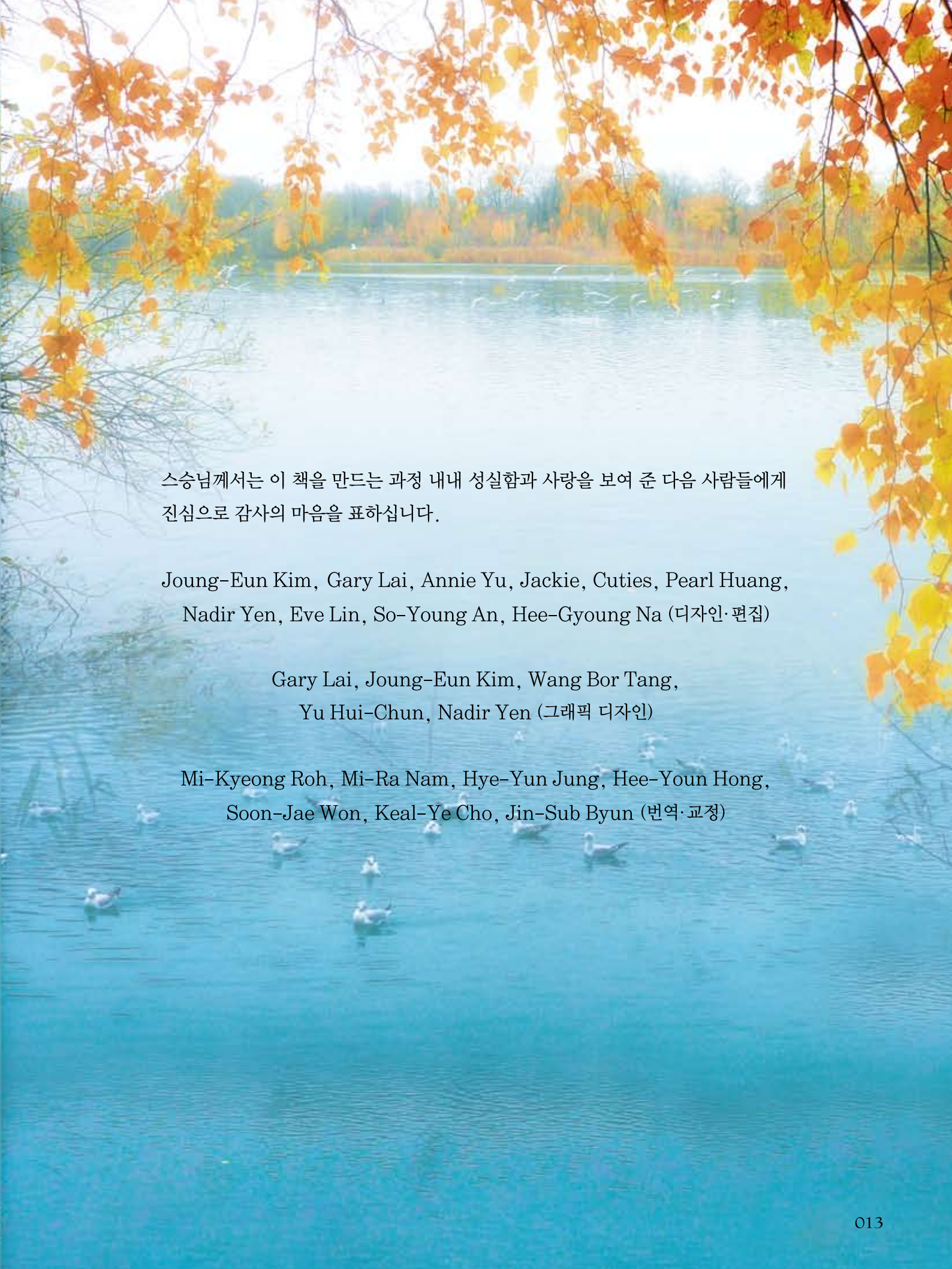
A scenic view of a lake with autumn foliage in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The water is calm and reflects the surrounding trees. In the foreground, there are several large, vibrant orange and yellow leaves hanging down, partially obscuring the view. The background shows a dense forest of trees with varying shades of green and yellow, suggesting an autumn setting. The sky is overcast and grey.

운율감 있고 사색적인 어조의 우아한 글들이 책 전편에 흐르는 『고귀한 야생』. 대자연 속의 신의 창조물을 담은 눈부신 사진들이 그 빛을 더해 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독자는 ‘여사’가 거주하며 귀한 야생 존재들의 방문을 받고 있는 아무라(Amoura)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사’는 다름 아닌 칭하이 무상사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야생』은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이 어린 그녀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스승님이 집필은 물론 사진 촬영과 편집까지 하신 이 귀한 보석은 독특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줍니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백조, 기러기, 다람쥐, 비버, 심지어 자그마한 달팽이에 이르기까지 야외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존재들의 고귀한 영혼과 현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피하지만 ‘여사’에게는 사진 찍기를 허락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다가가 다정한 여사한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사랑은 그 무엇과도 다릅니다. 존엄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만큼이나 심오하고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이 『고귀한 야생』의 각 페이지에 펼쳐지는 이 황홀한 이야기에 푹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법을 알려 주시고, 대자연 속에 더불어 사는 동물 이웃들의 지극히 소중한 품성을 보여 주신 스승님께 깊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서 팀



스승님께서 이 책을 만드는 과정 내내 성실함과 사랑을 보여 준 다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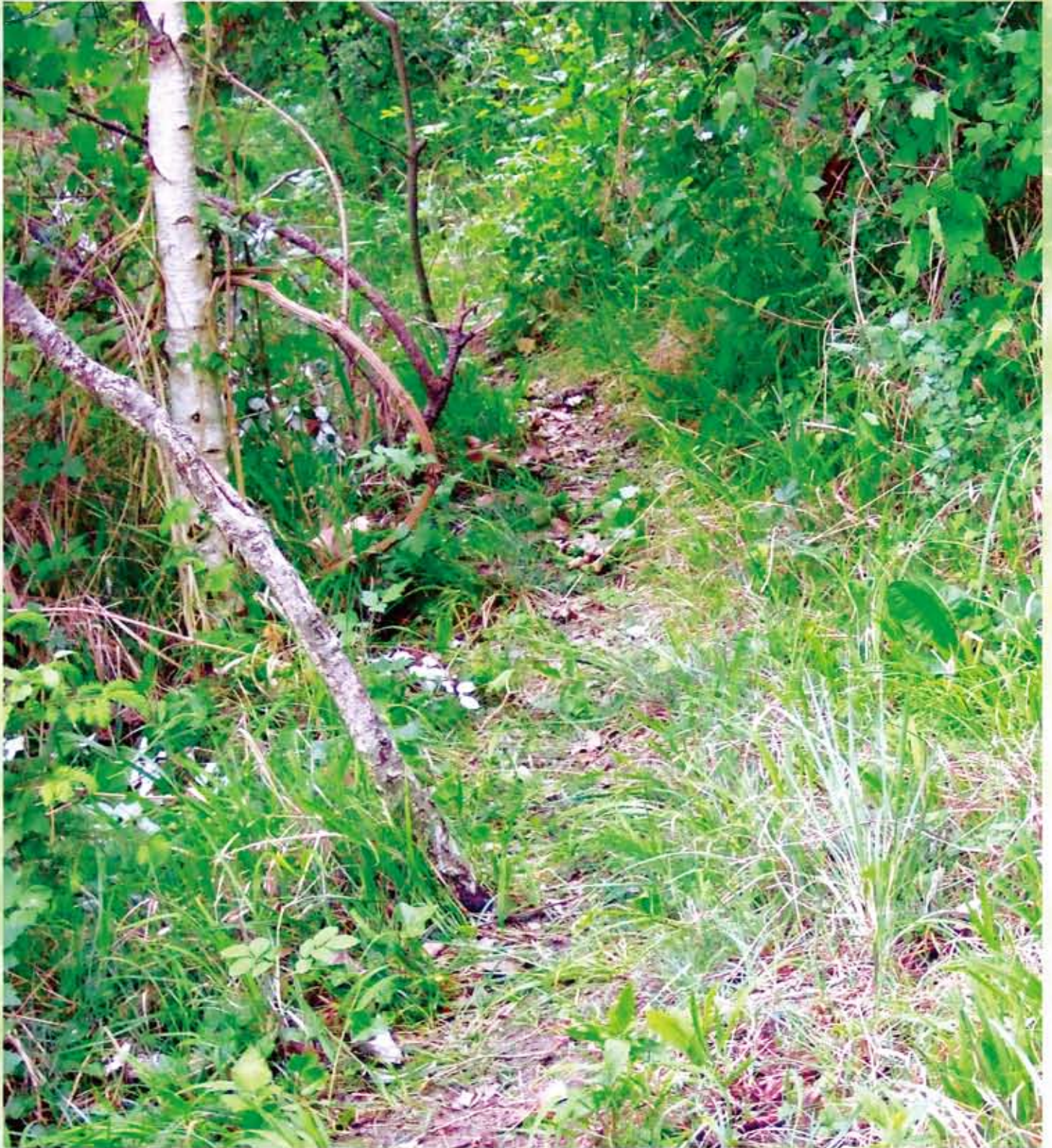
Joung-Eun Kim, Gary Lai, Annie Yu, Jackie, Cuties, Pearl Huang,  
Nadir Yen, Eve Lin, So-Young An, Hee-Gyoung Na (디자인·편집)

Gary Lai, Joung-Eun Kim, Wang Bor Tang,  
Yu Hui-Chun, Nadir Yen (그래픽 디자인)

Mi-Kyeong Roh, Mi-Ra Nam, Hye-Yun Jung, Hee-Youn Hong,  
Soon-Jae Won, Keal-Ye Cho, Jin-Sub Byun (번역·교정)

아주 오래된 마을과 숲으로 둘러싸인 22만 평방미터의 아무라 (Amoura)에는 사람 대여섯 명(“나그네”가 올 땐 인원이 늘어납니다.)과 개 10마리, 애완 새 몇 마리, 그리고 수많은 야생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오리로(路)



마을의 정원

이 마을에는 마을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마을의 야생 동물 대부분은 이 호수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백조, 기러기, 오리, 물닭, 다람쥐, 비버, 토끼, 거북이, 쥐, 개구리, 그리고 당연히 물고기도 있는데, 이들은 호수 주변이나 호수 안에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집



마을의 동식물

사슴과 다른 동물들, 이를테면 왜가리, 부엉이, 갈매기는 마을 주민은 아니지만 자주 찾아 오고 늘 환대를 받습니다.





마을 주민의 집으로 가는 계단

다람쥐와 토끼, 온갖 새들, 아기 돼지 두 마리에 이르기까지 다들 마을 주변의 숲을 좋아합니다. 이 마을은 수마일이나 뻗어 있는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승마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의 집





아무라의 자연미

주말이면 대개 말 탄 사람들과 땅을 구르며 발자국을 남기는 그들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도 여기 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대자연의 품에 안기곤 합니다.

……내가 야생 동물과 나눈 교류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기회에 일부만 말할 수 있을 뿐이지요. 말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조금 얘기 합니다.

동물들은 여러분의 보살핌에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기꺼이 돕고자 하며, 여러분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마음이 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통을 매개로 해서 다른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지요.

~칭하이 무상사

